**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주일 15시 예배, 비대면예배 16시.

**ㆍ어린이주일:** 다음주일, 이동훈 목사 설교

**ㆍ어버이주일 및 교회창립39주년기념주일:** 5월 8일

**ㆍ매일성경 5,6월호 받아가세요.**

**ㆍ섬김이 구함:** 청소년부 교사, 멀티미디어부원, 열두광주리 섬김이 등

**ㆍJC캠프 Teamertagung:**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ㆍ유럽밀알장애인캠프봉사자모집:** 7/11-16, Dühnenhof Cuxhaven, 4월말까지 신청

**ㆍIKK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ㆍ한국방문:** 신일수, 김혜경, 유근임

**\*\* 함께 기도합시다 \*\***

1)교회당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4)공의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침략자에게서 속히 구해 주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욘4:1-11 월/나훔1:1-15 화/나2:1-13 수/나3:1-19

목/시편79:1-13 금/시80:1-19 토/시81:1-16 일/룻기1:1-14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7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4월 24일** | **5월 1일** | **5월 8일** | **5월 15일** |
| **예배기도** | 정수연 | 어린이 | 송인선 | 이미전 |
| **말씀일기** | 오지훈 |  | 김아영 | X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백윤정 이선영 | 박희영  |

**39-17호 2022년 4월 24일**



 **“서로 위로하라”** (살전4:18)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 ※찬송/Gemeindelied …….......................... 20장 1,4절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85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81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찬양/Chor ………............................ 기쁨이 넘쳐 뛸 때 ….……………….. | 정수연 집사오지훈 집사서민규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빌4:4-5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톨레랑스 하라**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찬송/Gemeindelied .………............................ 424장 ………………….….……..…..봉헌/Kollekte……….......................................................................................................... | 설교자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욘2:1-10 '요나의 기도' ◀**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현학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얼핏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듯 하지만,

그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회개 혹은 참회가 빠져 있는,

허울 좋은 기도이다.

그는 자신이 도망치고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말하고(4),

8-9절에서는 분명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이방인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이다.

선교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자세는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의 자리로 가겠다 한다.

이렇듯,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리얼한 현장 속에서도,

자신이 배워왔고, 마음 속에 담아 온 편견과 고정 관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도한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입에 발린 기도요, 사람들이 듣기에만 좋은 노래이다.

한편, 요나가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스스로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퍼포먼스를 해야만 했던 선지자들이나,

혹은 호세아처럼, 퍼포먼스 정도가 아니라,

간음한 여인과 함께 살아야 했던 선지자는 물론이고,

마치 3인칭 작가 시점의 단편소설처럼,

자신의 오만하고 편협하고 허황된 믿음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만민들이 들여다 보는 저울대에 올려 놓은 요나 선지자.

그가 자신의 허물을 알몸 그대로 보여 주는데도,

여전히 오늘 나는 또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만

요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고 보면, 기도가 신앙의 최고의 무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유혹이고 허위의식인지도 모른다.

'진주와 같다'는 요나서를 정말 진주 되게 해야 할텐데...